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Ecology 경향연구

하 경 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대학원생)

양 취 경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과도한 문명발달로 20세기 전 인류의 공통과제로 부상한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은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의한 환경의 위기기 높아짐에 따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각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기초를 둔 긴급상황으로서 생태계문제는 디자인과 기획이 지구를 구하는 것과 사회를 구하는 것이 하나가 된, 분리할 수 없는 상호 조건으로서 생존 가능성과 사회 정의에 대하여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즘은 'Ecology(에콜로지)'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에콜로지'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급속하게 지적 중심 역할을 연출하면서 등장했다.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지구적 차원이 환경위기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현대는 '에콜로지의 시대'라고 불리고 있다.

생태계를 의미하는 에콜로지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패션에 구현되었는데 Primitivism, Exoticism, Neo-Cosmism, Naturalism 등은 바로 자연의 생태계를 동경하고 자연의 모습을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패션현상들로 분석된다. 원초적, 생명적인 이미지와 토속적, 생태학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 프리미티즘은 모발을 꼬거나 비틀어서 연출하는 레게스타일로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미개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이국취향은 자연을 존중하는 시각으로 표현된 헤어스타일, 즉 긴머리를 부풀리거나 땅아서 내리는 자유스러운 스타일, 정형화된 웨이브의 흐름으로 연출된 스타일로 이집트나 로마의 여선의 이미지를 연출하거나 인디언이나 동양적인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이국의 헤어스타일은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전통의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자연으로 복귀하자는 이념을 나타내었다.

확대된 자연, 우주의 질서와 생명은 첨단과학기술의 이미지가 강한 네오 코스미즘 헤어스타일은 상고 머리 형태에 기하학적인 선을 강조하거나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리는 형클어진 스타일로 새롭고 신비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현대인에게 다시 한번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

자연의 생태계가 무공해의 순수성을 표방하는 내추럴리즘은 소박하고 온화한 순수성을 지향하는데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질감과 실루엣으로 자연스러운 감각을 존중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부각시키고 있다.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에콜로지 경향은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순수함을 지향하고 있으며,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재창조된 자연, 즉 네오 에콜로지를 회복하자는 것이 에콜로지 경향에 내포된 의미이다.